

News

정부가 키운 기술금융... 은행들 연체 떠안는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중은행들, 기술금융 대출 지난 7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지난해 268조 1347억원... IBK기업은행의 대출잔액 81조 7,688억원, KB국민은행 38조 7,190억원 은행들,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투자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기술금융의 연체 규모는 2014년에 비해 250배 증가한 7,013억원

3분기 가계부채 1850조 넘을까...금리 인상 '초읽기'

데일리안

이번주 한국경제 3분기 가계부채 공개 예정...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840조원 상회 예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학습 효과로 카드 사용액은 증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초를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

대출금리 점검 팔 걷은 금감원... 은행 우대금리 부활할까

조선일보

금감원, 19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 소집해 대출 금리 점검 회의 열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 우대금리 중 일부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 여지 검토 계획
대출금리 인상 폭의 절반 이상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관련...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 금리는 0.9%p 인상

유진PE, 우리금융지주 지분 4% 인수한다

한국경제

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 유진PE,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할 전망이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예상 밖의 공격적 베팅으로 유일한 4% 지분 인수자로 압축... 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안정화 등 측면에서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보다 시너지 낼 수 있다고 판단

주가·실손보험 정보 공공데이터로 개방

매일경제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금융공공데이터 바탕으로 18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방
보험업 분야에서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각각 3개, 2개 API를 공개해 퇴직연금 펀드별 정보와 실손보험 정보 등을 제공

보험비교 서비스 멈춘 인슈어테크...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로 찾는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에 샌드박스 참여 의사가 있다고 제안서를 넣은 인슈어테크사는 보omp, 해빗팩토리, 아이지넷 등... 보험중개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자격 획득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보험 추천 서비스를 개시했음에도 법에 막혀 제대로 영업을 못해...

증권사 외화송금업 급성장...수익 1년 새 두 배 '깡충'

아시아투데이

증권사들, 소비자 혜택을 확장하며 은행 및 핀테크가 장악하는 송금업 시장 점유율 확대... 개인 투자자 수요 몰리며 송금업 호황
9월 말 기준 국내 14개 증권사의 3분기 송금수수료 수익은 38억 4,707만원으로 집계... KB증권의 송금수수료가 가장 많이 증가

치열한 서학개미 쟁탈전...삼성證, 수수료 수익 '똥'

서울경제

서학개미 급증으로 국내 증권사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 증가... 부동의 1위였던 미래에셋증권 내려앉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치고 올라오며 지각변동
미래에셋증권, 지난 3분기 1,148억원 벌어 3위로 밀려나... 삼성증권은 1,270억원으로 1위... 해외 주식 거래는 미국 증시가 가장 높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